‘불교 배척’, 근대 기독교 中선교 전략

주목! 학술서

심장섭의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중국을 공략했는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920년대 중국 베이징대 총장을 지낸 장멍린(蔣夢麟)은 “석가모니 부처는 흰 코끼리를 타고 중국에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대포를 타고 날아왔다”고 말한 바 있다. ‘대포 위의 예수’는 기독교가 함의한 서구 제국주의 정복자적 면모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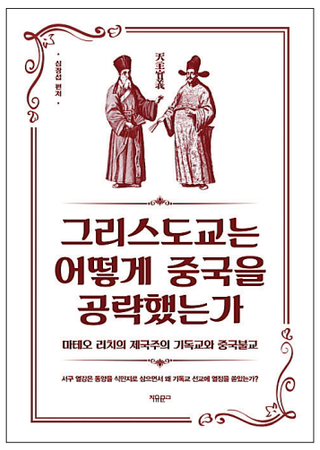
15세기 중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며 시작된 대항해 시대에 가톨릭은 해외 선교에 집중했고, 선두에는 예수회가 있었다. 중국에서 활동한 마테오 리치도 예수회 선교사였다. 그의 저서로 잘 알려진 〈천주실의〉는 서사(西士, 서양학자)와 중사(中士, 중국학자)가 대화를 통하여 토론하는 형식으로 꾸며진 가톨릭 교리서다.

하지만,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는 서구 제국주의 기독교의 선교 전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책이기도 하다. 그 전략은 ‘불교 배척’에 방점이 있다.

불교학을 공부해 온 심장섭 씨는 최근 내놓은 연구서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중국을 공략했는가〉를 통해 서구 열강들이 왜 식민지 선교에 집중했고, 어떤 방법으로 선교를 진행했는지를 조명하고 있다.

‘마테오 리치의 제국주의 기독교와 중국불교’가 부제인 만큼 주요한 내용은 마테오 리치의 저서와 이와 관련한 분석과 비판 등이 주를 이룬다. 특히, 근대 서구 열강의 정신문화인 기독교가 동양의 식민지화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불교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탐구한 결과여서 주목할 만하다.

책에 따르면 마테오 리치는 ‘중국의 신국화(神國化)’라는 거대 목표를 위해



마테오 리치 〈천주실의〉 분석
“윤회는 허구” 등 불교 적대화
‘보유척불론’ 내세워 선교 나서
佛·儒, 벽사론 제기하며 ‘반격’
유럽 내 ‘중국 붐’ 일어난 계기

중국의 사서(四書)를 비롯한 중국문화 전반을 연구했다. 이를 통해 마테오 리치가 주목한 것은 상제(上帝) 신앙이 나타나는 고대 유학이었다. 이에 대해 마테오 리치는 “고대 유교 경전에서 나타난 하늘(天)이나 상제는 기독교의 하느님과 동일한 존재였지만, 후대 송명이학의 무신론적 경향과 불교·도교의 우상숭배의 악영향을 받아 무신론으로 왜곡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신유학을 비판함으로써 유학에 기독교 이론을 침투시키고, 반대로 불교는 철저하게 배척하는 ‘보유척불론(補儒斥佛論)’의 선교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마테오 리치는 상호의존적 관계로 세계가 이뤄져 있다는 붓다의 공(空) 사상과 고정관념의 우상을 타파하는 선종 사상을 허무주의라고 비난했다. 명말 고승들에게도 근거없는 비난과 비방을 퍼부었다.

저자는 마테오 리치의 이런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한다. 마테오 리치의 인격적 유일신의 입론(立論) 시도는 “동양인들의 의식 수준의 퇴행을 부추기는 일이며, 근본사상을 훼손하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마테오 리치의 적대감 높은 태도에 대해 당대 불교와 유교는 반발했다. 당시 사대부 등 재가의 선비들과 운서 주굉, 우익 지욱 등 당대 최고의 불교 지도자들은 기독교에 대한 반격, 즉 벽사론(闢邪論)을 제기해 불교를 옹호하는 동시에 기독교 교리의 허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저자는 연구서를 통해 당시의 저술들과 운동을 중심으로 중국 불교계의 벽사운동을 자세히 고찰한다. 마지막으로는 명말청초 예수회의 전체적인 동향을 소개하면서, 그 후에 일어난 유명한 전례논쟁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학문적 전통을 다소 왜곡해 소개한 예수회원들의 저술이 오히려 유럽의 계몽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점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 모집

기본·심화과정 오는 24일까지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에서 오는 8월 24일까지 2018년도 2학기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연수생을 모집한다.

4학기 동안 30학점을 이수하는 3기 심화과정은 오는 2학기부터 1과목 증설돼 운영된다. 〈불조역대통재〉(박해당, 월), 〈화엄원인론발미록〉(신규탁, 화), 〈동문선소재역대승려시문〉(이상하, 목), 〈증도가주〉(문광 스님, 금) 강의가 진행된다.

학기당 16주 강의가 진행되는 기본과정은 〈치문경훈〉(선암 스님, 월), 〈중론〉(금천 스님, 화), 〈범어-한문 경전강독2〉(현진 스님, 수), 〈조당집〉(박영록, 목), 〈초서〉(양진석, 금) 강의가 이뤄진다. 기본 과정은 4학기 동안 30학점을 이수하는 ‘선발연수생’과 한 과목씩 선택해 수강하는 ‘일반연수생’으로 나눠 모집한다. 심화 과정과 기본 과정의 강의 시간은 모두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올해 1학기부터 시작한 ‘산스크리트어 문법 스터디’는 2학기에도 계속 이어진다. 스터디 시간은 오는 9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지원자는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입학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자기소개서와 대학(원) 재학증명서(혹은 수료증명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성민 기자

韓美 불교 석학들 간화선 대중화 ‘공감’

동국대 종학硏, 17일 美UCLA서 국제학술대회

제2회 수불학술상 시상식도

동국대 종학연구소(소장 정도)는 미국 UCLA 불교학연구소와 공동으로 7월 17일 미국 UCLA 로이스홀에서 제6회 간화선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선과 현대사회’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2010년 대회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학술대회에 앞서 제2회 수불학술상 시상식과 수상논문 발표회가 열렸다. 올해에는 국내외 연구자의 논문 19편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거쳐 3편의 논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은 ‘실존주의와 간화선에 있는 불명료함을 통한 도덕적 행위’를 연구한 웬디 L. 아다멕 캘거리대 교수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김성은 브리티시 콜럼비아대 교수의 ‘화두 절대주의의 호랑이 길들이기: 의례의 수행과 의례의 경험으로서의 간화선 수행과 그 경험’이, 장려상은 ‘돈오의 기원’을 성찰한 논문으로 스리랑카 페라데니야 대학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덕우 스님이 수상했다.

이후에는 주제 논문 발표와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의 기조 강연이 이어졌다. 주제 논문 발표회에서는 윤성하 원불교 교무의 ‘현대사회에 간화선 가져오기: 원불교에서 소태산의 간화선 재창조’를 비롯해 박포리 애리조나대 교수의 ‘한국 비구니의 간화선 수행:인홍 선사 그리고 석남사’, 앨버트 웰터 애리조나대 교수의 ‘21세기 선 불교학 서사의 재구축’ 등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종학연구소는 7월 17일 미국 UCLA에서 제6회 간화선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불자 교수들 ‘한국불교 중흥’ 논한다

교불련, 창립 30주년 맞아 한국교수불자대회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는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심익섭, 이하 교불련)가 현재 한국불교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교불련은 오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동안 경주 황룡원에서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2018년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불교 중흥’을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교수불자대회에서는 현재 한국불교의 위기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고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15일 오후 2시 입재식을 시작으로 3시부터 송재운 동국대 명예교수가 ‘한국불교 위기: 조계종 무엇이 문제인가’를 기조발제한다.

이후에는 ‘한국불교 중흥’을 주제로 발표와 지정 토론이 이뤄진다. 주제 논문으로는 △김광식 동국대 교수의 ‘한국 현대불교의 종단사와 이념’ △송운석 단국대 교수의 ‘한국불교 종단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김성규 영남대 교수의 ‘한국불교의 위기와 중흥전략’이 발표된다.

지정토론에는 전국선원수좌회 의장 월암 스님, 조계종 前 중앙종회 부의장 법안 스님을 비롯해 윤성식 고려대 교수, 이종수 중앙대 교수, 김광수 한양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또한, 교수불자대회 참가자 전원이 참석해 한국불교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대중공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8월 15~17일 경주 황룡원서
현재 불교 상황 비판적 고찰
교수·승가 참여한 토론 예정
다양한 주제 학술논문 발표도

특별회의를 이후 진행되는 △한국불교 세계화 △한국불교문화 △응용불교 △간화선과 명상 등 분과회의들도 눈길을 끈다. 각 분과회의에서는 조계종의 ‘한국불교 세계화’ 기획에 대한 비판적 논의(우혜란, 서울대)를 비롯해 인공지능 쟁점과 불교(이도흠, 한양대)·판소리 반영된 불교어휘(박환영, 중앙대)·생텍쥐베리 작품에서 불교사상 엿보기(어순아, 성신여대) 등 20여 편의 논문들이 발표된다.

이밖에도 석굴암과 동화사, 경주 남산 산행 등 불교문화유산 탐방과 명상강연 및 체험, 특별법문(대원정사 주지 청운 스님) 등의 문화·신행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또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의 차담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교수불자대회에 대해 심익섭 교불련 회장은 “‘한국불교 중흥’이라는 주제의 담론화를 통해 한국불교가 어떻게 발전했고, 현재 문제가 무엇이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불교 지성들과 불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강남 봉은사 판전 서울 유형문화재 지정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원명)는 “경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인 판전(板殿)이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25호로 지정됐다”고 8월 6일 밝혔다.

봉은사 판전은 추사 김정희가 죽음을 앞두고 ‘판전(板殿)’이라는 마지막 글씨를 현판에 남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판전이라는 이름은 경전을 찍어내기 위해 목판에 새긴 경판을 보관했기 때문에 붙여졌으며,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 목판을 비롯해 총 15종 3천500여 매의 목판이 보관돼 있다.

봉은사는 “판전은 화엄경판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1856년에 창건되고 1879년 중수된 단층 맞배집 목조 건축물”이라며 “고건축의 풍미와 세월의 멋을 보여주는 명승지”라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